

“마한 역사문화권 사업 성패, 주민 참여와 이해가 관건”

광주일보·호남문화재단연구원 공동개최 문화강좌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 개정된 특별법 마한 역사문화권에 광주 추가 포함 계기 6월까지 강의

“광주·전남지역 고대사의 뿌리인 마한(馬韓)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패의 관건은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입니다.”

광주일보사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재)호남문화재단연구원(원장 신용남)과 공동개최한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 문화강좌가 지난 4일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렸다. 이 강좌는 지난해말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마한(馬韓) 역사문화권에 광주광역시 포함 여부를 계기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지역민들의 지역 고대사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넓히고 고대문화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영진 호남문화재단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첫 강사로 나서 ‘역사문화권 특별법 개관’을 주제로 특강했다. 임 이사장은 학계에서 손꼽히는 마한백제고고학의 권위자다.

그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예맥·중원 등 8개 역사문화권이 설정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8개 역사문화권의 법제화



광주일보사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재)호남문화재단연구원과 공동개최한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 문화강좌가 지난 4일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렸다. 임영진 호남문화재단연구원 이사장이 ‘역사문화권 특별법 개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과정부터 법안의 특정·개발방안 등 주요 현안을 2시간에 걸쳐 강연했다. 정부차원의 역사문화권 보존과 정비의 시초가 됐던 국토교통부 국토종합발전계획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 기본계획 등도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의 마한역사문화권에서 애초 빠져 있던 광주지역이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들어 지역민들의 관심을 강조했다. 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임 이사장은 “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향후 정비·복원과 활용·관리에도 주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 문화강좌는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모두 16차례 열리는 강좌에는 국내 고고학·고대사 석학들이 차례로 강연한다. 임상택 부산대 교수, 이영문 포항공과대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 교수, 박양진 충남대 교수, 최종택 고려대 교수,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 이성주 경북대 교수, 이영식 인제대 명예교수, 박종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문안식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장, 차용걸 충북대 명예교수, 정재운 공주대 교수 등이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마한역사문화권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문의 호남문화재단연구원 기획사업실(전행민 061-383-3640).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불굴의 산악인’ 故김홍빈 대장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특별공로상 수상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이 2022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집행위원장 배창호)는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고 김홍빈 대장의 도전정신을 기리고자 특별공로상에 선정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선정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는 지난 2월 폴란드 산악인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72)가 선정됐지만 국내 등반사에 길이 남을 공을 세우고 등반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를 심어준 김 대장을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영화제 측은 덧붙였다. 시상식은 오는 4월 1일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시상식과 함께 영화제 기간 동안 지난 2020년 10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됐던 김 대장이 직접 담아낸 히말라야의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되며 지난 해 방영된 다큐멘터리 영상 ‘산악인 김홍빈의 산 너머 삶’이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김 대장의 마지막 원정에 함께 한 동료들이 관객과 함께 그의 도전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故 김홍빈 대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김 대장의 삶을 재조명해보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와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마지막 히말라야인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조난을 당한 뒤 실종됐다.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북학웰컴센터 일원에서 열리며 42개국 148편의 영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김진혁 교수,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선정

전남대학교 김진혁(사진) 교수가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으로 선정됐다.

전남대 김진혁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과학기술 학술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이 학계, 산업계, 국가기관 등에서 공학 및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우수 공학 기술인을 발굴해 우대하는 일반회원에 선정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단체로, 공학·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 법인이다.

김진혁 교수는 교육부 ‘이공분야 중점연



구소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사업(GET-Future)’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 등으로 180여억 원의 사업비를 수주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지도 높은 국제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전남대 공과대학장을 맡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

5·18 세계에 알린 독일 슈나이스 목사 영결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고(故) 파울 슈나이스 목사를 추모하는 장례식이 5일(현지시간) 독일 하이델베르크 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장례식에는 부인 기요코 여사를 비롯해 일가친척과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감사를 전하며(In dankbarer Erinnerung)’라고 쓴 조화를 보냈고, 고경석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가 참석해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슈나이스 목사는 1975년부터 1984년까지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 일본 파견 선교사로 일하며 유신 독재

와 군부 정권에 저항하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지원했다.

1978년 12월 박정희 정권에 의해 입국 금지된 뒤에는 부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상황을 파악한 뒤 독일 NDR방송 도쿄지국 워터겐 힌츠퍼터 기자를 찾아가 광주 취재를 요청했고, 그 결과 5·18 민주화운동 영상이 세계로 알려질 수 있었다. 이는 영화 ‘택사운전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꿀잼 영화가 좋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팔도방송(재) 40 제20대 대선 방송연설 (이재명 후보)	00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스페셜 -달 밝으면 벚 생각하고(재)	15 헬로킴지 과학교실 45 주리킴스3	00 우리끼리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크레이지 러브 스페셜 -대 환장의 프롤로그(재)	00 12 MBC 뉴스 20 2022 베이징 겨울패럴림픽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사내맞선(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2022 베이징 겨울패럴림픽	00 KBS 뉴스타임 10 포뮬V(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 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3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 50 노래가 좋아(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로컬식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50 시사타미!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사랑의 패배기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백종원 클라쓰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크레이지 러브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제20대 대선방송연설 국민의회 윤석열 후보 05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50 개는 훌륭하다	30 로컬식탁	00 사내맞선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매거진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30 차종우돌 한국 유망기 떠나요! 차박 캠핑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6:25 위인극장(재)
05:5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06:1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07:00 뽀롱뽀롱 뽀로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7:15 우당탕탕 온한안전단	12:00 EBS 뉴스 12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7:30 엄마 까투리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7:45 출동! 슈퍼왕스(재)
07:45 띠띠뽀 띠띠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8:00 생방송 워킹맘 해결단
08:00 딩동댕 유치원	15:50 EBS 다큐프라임	18: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4: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9:00 미라클러스 : 레이다비그와 블랙잭
08:35 출동! 슈퍼왕스	15:05 클래스 e	19:30 한국의 들레길
08:50 위인극장	15:25 EBS 비즈니스 리뷰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9:0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5:40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09:20 꼬마버스 타요	15:50 직업탐구 비밀입니다2	21:30 한국기행
09:35 뽀로로와 노래해요	16:05 통통가족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우리집 유치원	16:15 페퍼 피그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7일(음 2월 5일 己未)

<p>36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하자. 48년생 일단 안정을 시키고 나서 모색함이 현명하다. 60년생 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난처한 양태이다. 72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뜻을 깨달을 것이다. 84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96년생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14, 62</p>	<p>42년생 상대의 의사에 따르는 것도 괜찮다. 54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더 늘린다면 복잡해지기만 할 것이다. 66년생 제대로 호평 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78년생 정성을 들이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90년생 상호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02년생 획득 못지않게 관리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9, 56</p>
<p>37년생 직격이 아니라 미련을 버리는 것이 좋다. 49년생 일사천일 정제 현상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면키 어렵겠다. 61년생 대동소이하니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다. 73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자. 85년생 이대로는 아니니 더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97년생 완벽하게 처리해야 뒤따라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89</p>	<p>43년생 맞대응하려 하지 말고 예방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55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67년생 재정비에 확실한 신경을 써야 한다. 79년생 특별함을 도모하게 되는 진귀한 계기가 주어질 것이니 놓치지 말라. 91년생 본전만 찾아도 다행이니라. 03년생 옛 것으로부터 행운이 따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9, 93</p>
<p>38년생 단독으로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50년생 편리한만을 추구한다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62년생 값어치를 따져서 판단할 일이다. 74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성사 되리라. 86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속출하리라. 98년생 편견 없이 판국을 살핀다면 반드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6, 69</p>	<p>44년생 관계 때문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 할 수다. 56년생 양호한 기분이 원만한 전개를 담보한다. 68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의 양상으로 이끈다. 80년생 일단 예방을 피한 다음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92년생 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04년생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 15, 83</p>
<p>39년생 작은 현상이나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51년생 생 먹구름 사이를 헤집고 희망의 붉은 해가 치솟는다. 63년생 생 분수를 지킨다면 흉사를 비껴갈 수 있다. 75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87년생 길고 긴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99년생 북 속에 조그만 화의 불씨가 숨어있다. 행운의 숫자 : 29, 70</p>	<p>33년생 믿고 추진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었다. 45년생 기다리는 것은 안 오고 아무 상관 없는 것만 보이며라. 57년생 이상 징후가 보이니 지체 없이 종합 점검하라. 69년생 관점의 차이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81년생 지금 행한다면 흠족하지 않겠으니 후일을 기약하자. 93년생 소신껏 임했을 때 탄력이 붙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6, 64</p>
<p>40년생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함을 명심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롭다. 52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64년생 평생상시에 안전 의식을 잊지 말아야 면액할 것이다. 76년생 처한 입장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88년생 인고의 국면 뒤에 성취의 기쁨을 만끽한다. 00년생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라. 행운의 숫자 : 13, 58</p>	<p>34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것이다. 46년생 한 번 시작되면 술술 풀려 나갈 것이니라. 58년생 한껏 멋 내고서 달밤에 홀로 걷는 격이다. 70년생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82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94년생 일시적인 충동 심리에서 기인한다면 오래 가지 못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97</p>
<p>41년생 변동하지 말고 기만하고 있는 것이 백번 낫다. 53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하자. 65년생 실체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맞다. 77년생 결정적인 순간이니 주목하고 있어야겠다. 89년생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01년생 태연자약하게 침묵을 지키자. 행운의 숫자 : 25, 81</p>	<p>35년생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47년생 길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라. 59년생 판도를 좌우할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71년생 각기 격려를 하는 것이 옹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83년생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95년생 전혀 관계 없으니 개의치 말라. 행운의 숫자 : 06, 79</p>